

 교회음악소식 새문안교회 언더우드기념 한국교회음악교육원	1998년 4월 23일 (목) 창간 제52호 발행처 언더우드기념 한국교회음악교육원 110-06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42번지 원장 원성희 전화 723-4961 팩스 723-5030 E-Mail wonmuse@chollian.net 인터넷 http://www.underwoodmusic.org
---	--

《특강》

Credo : 「내가 믿나이다」 - 사도신경과 니케야신경의 비교 -



원성희

본 새문안음악교육원 원장
이화여대 명예교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 (신경, 신조)들이 교회에서 - 특별히 세례식에 세례를 받을 신앙인에게 -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Creed (믿음의 고백, 라틴어 : Credo)”는 교회의 교리에 따른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형식적이고 간결하고 공인된 성명이다. 원래는 세례문답에 사용된 믿음의 고백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달랐으나 2세기 중엽부터는 이런 세례용 신앙고백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었다고 한다. 서방에서 사용한 “사도신경”은 약 390년 이전에 완성되었으며 현재까지 (특히 서방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알려진 “니케야신경”은 오히려 “니케야콘스탄티노플신경”이라고 하면 더 적합할 것 같다. 니케야회의 (Council of Nicaea)에서는 이단으로 밝혀진 아리우스파 학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신조를 작성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자가 되신 것을 특히 강조하며, 성부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역시 정확하고 강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성령에 관한 말씀이 매우 짧고 그 외 다른 기독교 교리도 빠진 것이 많아 후에 보충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부터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역사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니케야신경”은 약 480년부터 안디옥 교회의 성찬 예식에 사용하기 시작하여 점차 동방과 서방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로마에서는 101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택되었다. 모든 서방, 동방 교회의 성찬 예배에서 니케야신경의 고백이 정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한국 교단에서는 사도신경만을 알

이번 달엔 이런 내용이 *****

《특강》 Credo: 내가 믿나이다 원성희 원장
1,2,3면

찬송가반주반 수강생 모집 3면

《교회음악용어해설》 Chorale과 Choral 4면

《모집》

2002-2 교회음악과정

제9회 중고생 교회반주자를 위한 여름교회음악학교
8면

교회음악교실42 교회예배를 위한 이종창 선곡 ①

원성희 원장 5-6면

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 모두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니케아신경의 내용이 좀 더 길고 정확하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믿는 공동체가 사도신경을 읽거나 외우면서 신앙을 고백한다.

그러나 교회음악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미사에 있어서 “Credo”의 내용은 사도신경이 아니라 니케아신경이다. 어떤 사람들은 “Credo”를 번역하여 “사도신경”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틀린 말이다. 다음에 기록한 두 개의 신경을 서로 비교하면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새문안교회 세번역문)	Nicene Creed (니케아신경) (*정장복 교수 번역)	Nicene Creed (니케아신경) (*라틴어로 된 텍스트)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Credo in unum Deum, Patrem Omnipotentem, factorem caeli et terrae, visibilium et invisibilium.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또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대에 앞서 성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나이다.	Et in unum Dominum Jesum Christum, Filium Dei unigenitem, ex Patre natum ante omnia saecula. Deum de Deo, lumen de lumine, Deum verum de Deum vero, Gentium, non factum, consubstantialem Patri: per quem omnia facta sunt.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신으로 또	Qui propter nos homines, et propter nostram salutem descendit de caelis.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Et incarnatus est de Spiritu Sancto ex Maria Virgine, et homo factus est.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Crucifixus etiam pro nobis sub Pontio Pilato: passus et sepultus est. Et resurrexit tertia die secundum Scripturas.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Et ascendit in caelum: sedet ad dexteram Dei Patris. Et iterum venturus est cum gloria judicare vivos et mortuos: cujus regni non erat finis.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신을 믿나니 성부께로부터 좇아 나시며 성자와 더불어 같은 흠숭과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나이다.

Et in Spiritum Sanctum Dominum et vivificantem, qui ex Patre Filioque procedit, Qui cum Patre et Filio simul adoratur et conglorificatur; qui locutus est per Prophetas.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하나인 공변되고 (보편적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Et unam sanctam catholicam et Apostolicam Ecclesiam. Confiteor unum baptismum in remissionem peccatorum.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알고 믿나이다.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굳게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Et expecto resurrectionem mortuorum, et vitam venturi saeculi. Amen.

사도신경과 니케야신경은 모두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들을 같은 순서로 기록하고 있지만, 각 부분마다 니케야신경이 더 많은 말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다.

미사곡을 지휘·반주·노래할 때마다 이 역사적이며 훌륭한 니케야신경의 내용을 사용하여 귀한 신앙을 선포한다는 자부심을 느꼈으면 한다.

교회음악에서 “Credo” 즉, “내가 믿나이다”를 말할 때 항상 “니케야신경”을 말한다는 것은 기억할 만한 것이다. **교회음악소식**



찬송가만주만*

개 강 : 9월 5일 (목) 오후 2시 (2개월 과정)
대 상 :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성도
찬송가를 4성부로 칠 수 있는 성도

모집인원 : 12명

접 수 : 방문, 또는 전화접수 후 온라인 입금
(주택 293837-01-000032 예금주: 새문안교회)

강의방법 : 공개레슨

내 용 : 찬송가 4성 집중/ 찬송가 즉흥연주 기법/ 코드 반주법

수 업 일 : 매주 목 오후 2시-5시

수업장소 : 새문안교회 신관 310호

수 강 료 : 9만원/2개월

문 의 처 : 새문안음악교육원 3교육관 304호 ☎ 723-4961

지도 : 구한나

안양대 교회음악과 졸업
독일 뮌헨시립음악대학교 마이스터과정 졸업,
연주자 과정 이수
독일 슈트트가르트 국립음악대학원 졸업
현 천안기독교대 출강





Chorale과 Choral

Chorale

원칙적으로 보아 코랄 (Choral)이란 독일어로 된 특수용어인데 독일 찬송을 의미한다. 찬송인 코랄의 형식적 완성은 종교개혁자 루터 (Martin Luther, 1483-1546)의 중요한 업적이며, 회중찬송 부르기 운동에 있어서도 큰 힘이 된 음악형식이다. 이런 찬송의 가사나 선율을 “코랄”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었다. 그 시대 전까지만 해도 “Choral”은 그레고리오 성가를 의미하였다. 회중들은 복잡한 다성음악으로 구성된 교회음악을 듣기만 하다가, 전통적 종교가곡이나 민속음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유절형식으로 된 어렵지 않고 반복되는 규칙적인 리듬형, 쉽게 접할 수 있는 선율로 된 코랄이 등장하자 매우 좋아하여 인기 있는 것이 되었다. 더욱이 예배에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루터는, 예배에서 회중이 성찬식만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연합된 몸이 되며 목회자의 말씀에 응답하고 믿음의 기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당시의 새로운 지식이 우리 시대까지 내려오고 교회의 보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어로 된 Choral은 명사이며 영어로는 “Chorale”이라고 한다. Chorale 선율은 많은 사랑을 받아서 16세기부터 다른 음악형식 작법에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Chorale Prelude”, “Chorale Cantata”, “Chorale Partita”, “Chorale Motet”와 같은 곡들이 대단히 많다. 여기에 쓰이는 “Chorale”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인데 “Choral(e)에 의한 Prelude”, “Choral(e)에 의한 Cantata”를 말하는 것이다.

Choral

이 단어는 “합창의”라는 뜻의 영어이며 형용사이다. 따라서 이 단어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랄 음악” “코랄 지휘법”, “코랄 테크닉”, “코랄 작품” “코랄 음악회”등 여러 표현에 쓰이는데 한국식으로 “합창 음악”, “합창 지휘법”등으로 표현하면 적당하다.

따라서 만일 합창단을 위해 새롭고 멋진 이름을 쓰려고 한다면 “Choral”이란 단어는 쓰지 말아야 되겠다.

“Saemoonan Choral”, “Pusan Choral”등은 뜻이 없는 이름이 된다는 말이다. 미국식으로 하고자 하면 “Seoul Chorale”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는 미국에서 작은 합창단을 때로 “Chorale”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교회예배를 위한 이중창 선곡①

지난 8개월간 교회예배 시간에 어떤 독창곡을 선곡하면 좋을지 '교회음악교실'을 통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가 중창곡도 소개해 달라는 한 독자의 부탁을 받고 몇 가지 곡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소개표를 밝히기 전에 몇 가지를 언급하면 좋을 것 같다.

첫째로, 어떤 파트라도 듀엣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가정 많은 곡은 소프라노 2명, 소프라노와 알토, 그리고 테너와 베이스에 의한 곡들이다. 이중창으로 작곡된 소품들도 있고 긴 작품(오라토리오, 칸타타, 미사곡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여성 합창곡을 여성 듀엣으로 만든 곡도 있고, 찬송가 등을 편곡한 곡도 많이 있다.

둘째로, 이중창 곡들의 수준에 편차가 크다. 부르기 쉽고 편안한 곡들도 있는 반면 매우 복잡하고 좋은 음악성과 예술성을 요구하는 어려운 곡들도 있다. 또한 경험이 많은 독창자의 경우에는 "대화식" 듀엣을 잘 감당할 수 있겠지만 초보 솔로리스트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유니슨, 부분적으로 평행 음정으로 구성된 곡을 선택하면 적합할 것 같다. (악보를 참고하면 분명히 이런 작곡 방식을 잘 구분할 수 있겠다.) "대화식" 듀엣의 유명한 예는 존 스테이너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 가운데 "주 예수의 기원"이다.

셋째로, 독창을 연주하는 것보다 이중창을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모든 실내악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성악가와 반주자)이 아닌 세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음악이기 때문에 서로 잘 듣고 느끼고 이해해야 하므로 충분한 연습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원성희

본 새문안음악교육원 원장
이화여대 명예교수

교회력에 따른 절기에 의한 이중창 소개표

곡목	작곡가	성부	악보집	악보구입처	*수준	절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님의 크신 사랑은	김두완 한태근	S.A (자유선택)	“임마누엘” 중에서 「언젠가 나의 기도 하늘에 닿으리」	아가페 음악선교원 로고스 출판사	M E	대강절 대강절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나서	J.S. Bach	S.B	「Magnificat」 중 홍정수편	아가페 출판사	D	대강절, 성탄절
모든 것 되시는 주님	R. Carmichael	S.A	「여성명성가」 I 김범영편	호산나음악사 (말씀사 외)	E	성탄절
주의 자비, 주의 궁휼	J.S. Bach	S.B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호산나음악사 (말씀사 외)	D	성탄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F. Gruber	S.S(S.A)	「여성합창을 위한 성가곡집」 원성희 역편	교육원	E	성탄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김두완	S.T	“기다리던 예수” 중에서	아가페 음악선교원	E	성탄절

주예수의 기원	J. Stainer	T.B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	말씀사 외	M-D	사순절
넓은 길로 지나가는 사람아	F. Couperin	S.A	「여성합창을 위한 성가곡집」 원성희 역편	교육원	E-M	사순절
Sub tuum praesidium	W.A. Mozart	S.T	「Geistliche Arien」	교육원	D	사순절
오늘 낙원에 나와 같이 거하리라	I. Writer	S.S(S.A)	「여성명성가」 I 김범영편	호산나 음악사 (말씀사외)	E	사순절
Fac ut portem Christi mortem	A. Dvorak	S.T	「Stabat Mater」 중8번	?대한음악사	D	사순절
O quam tristis (외3곡)	G.B. Pergolesi	S.A	「Stabat Mater」 중3번	"	M	사순절
Vidit suum dulcem natum (외4곡)	A. Scarlatti	S.A	「Stabat Mater」 중8번	"	M	사순절
엠마오의 두 제자	김두완	S.S(또는S.T나 T.T)	여성교회합창①	기독교음악사출판 (말씀사외)	M	부활절
하늘이여 기뻐하라	Joe E. Parks 편곡	S.A	「여성명성가」 I 김범영편	호산나 음악사 (말씀사외)	E	부활절

헌신예배를 위한 2중창 소개표

곡목	작곡가	성부	악보집	악보구입처	* 수준	절기
나의 생명 드리니	W.A. Mozart	S.A	여성교회합창①	기독교음악사 (말씀사외)	E-M	헌신예배
주예수를 떠나서는	R.J. Hughes	S.S	여성명성가 I 김범영편	호산나음악사 (말씀사외)	E	"
나는 아네 그 사랑	M. Lister	S.S	"	"	E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G.C. Stebbins	S.A	"	"	E	"
하나님의 사람이여	F. Mendelssohn	S.B	‘Elijah’ 중8번 (일부분선택)	"	D	"
주여,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H.H. Hopson	자유	「여성합창을 위한 성가곡집」 원성희 역편	교육원	M	헌신예배 외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G.F.Handel	A.T	「Messiah」 50번	쉽게 구할 수 있음	D	장례
They shall hunger no more	A.R. Gaul	S.A	「The Holy City」 14번	교육원	M	장례

* E=쉬운 편, M=보통, D=어려운 편, 교육원=새문안음악교육원

듀엣곡 중에는 깊은 뜻을 가지는 곡들이 많고 특별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새로운 음색,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으므로 회중들이 귀를 기울이면 음악으로 전파하는 메시지를 더욱 잘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회음악선식

교수동정

1. 강기성 교수/ 7월 29일-8월 2일까지 건국대에서 열리는 '획기적합창세미나'에서 강의하시고, 8월 3일-12일은 미국 세계합창 심포지움에 참석하십니다. 또한 8월 17일은 광림수양원에서 중창단 연합세미나, 8월 19일-24일은 장신대에서 열리는 서울오라토리오페스티벌에서 강의하시고, 8월 22일 저녁 7시에는 장신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서울 바로크 싱어즈 초청연주를 지휘하십니다.
2. 고성호 교수/ 7월 20일에는 포스코 주관 '월드컵기념음악회'에, 7월 21일에는 '열린음악회'에 출연하셨습니다.
3. 김동혁 교수/ 7월 26일과 8월 22일에 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부천시립합창단 주최 '신임지휘자 초청연주회'에서 지휘하십니다.
4. 김명엽 교수/ 7월 31일-8월 2일까지 '획기적합창세미나'에서 주강사로 멘델스존의 '바울'을 해석하시고, 7월 30일부터 열리는 호산나음악사의 '성가합창소리만들기세미나'와 8월 15일-17일 남원에서 열리는 교회음악아카데미 제11회 교회음악세미나에서 강의하시며, 8월 14일에는 서울마하합창단 순천순회연주를 지휘하십니다.
5. 김성봉 교수/ 7월 23일에는 한국음악협회고양지부에서 주최하는 '가족사랑음악회'를 주관하셨고, 7월 25일에는 고양시립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를 주관하십니다.
6. 김윤경 교수/ 7월 25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리는 '그랜드콘서트 성가의밤'에서 반주하십니다.
7. 박신화 교수/ 7월 31일-8월 2일까지 건국대에서 열리는 교회음악협회 주최 '획기적합창세미나'에서 강의하십니다.
8. 박치용 교수/ 7월 27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서울모테트합창단 제48회 정기연주회'에서 지휘하십니다.
9. 원성희 교수/ 이화여대 음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이화음악논집' 제6집에 'Some Aspects of the French Cantata, 1703-1968'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10. 이숙자 교수/ 7월 25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리는 '그랜드콘서트 성가의 밤'에 출연하십니다. 또한 8월 19일-24일에는 음악선교차 중국에 다녀오십니다.
11. 전창섭 교수/ 7월 29일-8월 2일 동해의 거진에서 열리는 코믹오페라단 여름음악캠프에 참가하십니다.

교회음악교육원 소식

1. 9월에 개강하는 <찬송가 반주반>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4면 참조)
2. 2002년 2학기 교회음악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8면 참조)
3. 제9회 중고생 교회반주자를 위한 여름교회음악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8면 참조)

교회음악 뉴스

<제6회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일시 : 2002. 8. 19(월)-24(토)
 장소 : 장신대 한경직 기념 예배당
 주제 : 크리스마스오라토리오(바하), 글로리아(비발디)
 합창 : 페스티벌 콰이어
 문의 : 장신대 교회음악학과 (450-5427, 450-0818)
 -페스티벌 연주회 : 8월 24일 저녁 7시
 장신대 한경직기념예배당-

<종교음악감상회>

일시 : 2002. 8. 8 (목) 오후 7시
 장소 : 양재동 사거리 수협건물 성서공회 4층
 감상곡 : 명지회자 명지회자 순례 (Stephen Cleobury와 King's College Choir)
 해설 : 최중문 교수
 주최 : 대한성서공회 ☎ 02-3474-3061

제9회 중고생 교회반주자를 위한 여름교회음악학교

을 여름 멋진 계획 있으세요?
여름교회음악학교로 오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교회음악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기간 : 2002. 8. 5- 8 (월-목)
장소 : 새문안교회 수양관 (경기도 현리 소재)
교육대상 : 중고생으로서 교회반주자. 체르니 40번 이상, 반주경력 6개월 이상
교육내용 : 교회에서 사용되는 피아노 반주법 및 성가곡 연주법, 예배와 음악, 교회력, 기초음악이론 등
수강료 : 120,000원 (공개레슨비, 숙식비, 간식비, 교재비 등 제반비용 포함.)
접수 : 7월 30일 (화)까지 전화접수 후 학생이름으로 송금. 입금선착순 36명 모집 (인터넷접수 가능)
(주택 293837-01-000032 새문안교회)

강사진

원성희 (미국 Westminster Choir College 대학원. 이화여대 명예교수. 본 교육원 원장.)
김윤경 (독일 Kärnten. Mannheim 국립음대 대학원. 경원대 겸임교수. 연세대, 숭실대 출강.)
박인혜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국제고등음악원 출강)
한재선 (헝가리 Budapest-Liszt 음악원. 천안외대 겸임교수.)
안혜원 (이화여대 종교음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분당침조교회 오르가니스트.) 외

*분반오디션

(분반과 효과적 교육을 위한 오디션입니다)

8월 1일 (목) 오전 10시 30분

준비곡 :

찬송가 1곡, 성가 반주파트 1곡 (자유곡)

● 오디션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은

7월 30일 (화)까지 테이프를 보내주시

면 됩니다.

2002-2 교회음악과정 수강생 모집

보다 나은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기초과정

실기분야 : 발성, 기초지휘
대상 : 크리스천으로서 교회음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자.
특별히 성가대원.
기간 : (15주X2학기) 1년 수료과정
주 1회 (월) 19:00-22:00
내용 : 교회음악이론, 음악이론 및 시창, 합창훈련 및 발성법(지휘법)
개강 : 9월 2일 (월) 19시, 새문안교회 본당
등록 : 방문/전화→입금→확인전화 (인터넷접수 가능)
수강료 : 8만원/학학기 (15주)
(단, 첫학기에는 입학금 5만원 별도)

전문과정

전공분야 : 독창, 지휘, 오르간반주, 피아노반주
대상 : 교회지휘자, 반주자, 독창자로 봉사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자.
기간 : (15주X2학기) 1년 수료과정
(월) 19:00-19:50과 (화) 19:00-21:50 또는
(월) 18:00-21:50 중 택일
내용 : 교회음악이론, 전공강의, 전공실기(공개레슨)
개강 : 9월 2일 (월) 19시, 새문안교회 본당
접수 : 8월 23일 (금)까지 방문/전화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오디션번호 부여
전형 : 오디션-8월 24일 (토)
성악, 반주 : 13시 / 지휘 : 16시
※반주/ 찬송가 1곡, 성가곡반주파트 1곡
성악/ 찬송가 1곡, 성가곡 1곡
지휘/ 시창, 기초음악이론, 면접
수강료 : 16만원 /학학기 (15주)
(단, 첫학기에는 입학금 5만원 별도)

강사진

원성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본 교육원 원장) 강기성 (서울 바로크싱어즈 지휘자, 장신대 강의전담 교수, 숙명여대, 성결대, 세종대, 숭실대 출강) 강순영 (인천재능대학 출강) 고성호 (경희대, 서울신대, 국민대 출강) 김명열 (서울바하합창단 지휘자, 연세대 교수), 김윤경 (경원대 겸임교수, 연세대, 숭실대 출강) 김성봉 (고양시립합창단 지휘자, 성결대 겸임교수, 명지대 출강) 류여명 (성결대, 기독교대, 서울교대 출강) 박신화 (안산시립합창단 지휘자, 이화여대 교수) 박지용 (서울 모테트합창단 지휘자, 성신여대 겸임교수, 서울예술종합학교 출강) 이재선 (장신대, 이화여대, 강원대 출강) 이명진 (장신대 교수) 이수자 (명성교회 독창자) 이유희 (한국 오르가니스트 협회 교육이사, 장신대 출강) 임미선 (연세대 출강, 새문안교회 독창자) 전창섭 (연세대, 장신대 출강) 한은미 (목원대, 장신대, 한양대 출강) 한재선 (천안외대 겸임교수) 홍권욱 (강원대, 백석예술학교 출강, 미국코네티컷 대학 객원교수, 작곡가) 외 교회음악전문가

새문안교회 언더우드기념 한국교회음악교육원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42 tel.02-723-4961 fax.02-723-5030 e-mail:wonmuse@chollian.net www.underwoodmusic.org